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퀀트/자산배분 Analyst 최재원, RA 유지윤



키움증권

미 증시, 중동발 노이즈 속 빅테크 실적 대기심리 등으로 소폭 약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2일(수)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2.3%)의 베라 루빈 대량 생산 기대감 등에 따른 반도체주의 양호한 주가 흐름에도, 미-이란 갈등 지속, 알파벳(-1.2%), 테슬라(-1.3%) 등 빅테크 실적 대기심리 여파로 소폭 약세(다우 -0.01%, S&P500 -0.14%, 나스닥 -0.5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

이처럼 시장은 매크로, 지정학적 이슈보다 2분기 실적시즌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금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AI,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민감도를 높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 일단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은 2분기 매출(1,198억 달러 vs 컨센 1,170억달러 상회)이 호조세를 보였으며, 주력 사업인 클라우드 매출(247억 달러, YoY +82% vs 컨센 224억달러)과 영업이익률(35.6% vs 컨센 30.8억달러)이 서프라이즈를 시현.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실질적인 눈높이가 +70%대 중반까지 올라갔었다는 점을 고려 시, 이번 본업 실적 결과는 긍정적이었음. 26년 CAPEX 가이드선도 기존 1,85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상향했으며,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으나 2027년에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

물론 시간외 주가가 현재 -4%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CAPEX 투자 확대 여파로 2분기 잉여현금흐름(FCF)가 -58.6억달러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수익성(ROI) 우려를 자극한데서 기인. 다만, 이들 컨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CAPEX 상향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점, 상기 확인한 것처럼 클라우드를 포함한 본업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추후 MS, 아마존, 메타 등 여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실적도 확인해야 하지만, 첫번째 주자였던 알파벳의 호실적 및 CAPEX 가이드선 상향은 국내 반도체주를 둘러싼 불안(고객사 CAPEX 축소 가능성, 메모리 사이클 피크아웃 가능성 등)을 완화해준 결과였다고 판단.

전일 코스피는 미국 반도체주 동반 폭등에 힘입어 장 초반부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6% 넘는 급등세를 보였으나, 이후 알파벳 실적 대기심리 확산, 미-이란 지정학적 노이즈 등에 따른 경계성 매물 출회 여파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로 마감(코스피 +0.7%, 코스닥 -0.3%).

금일에는 유가 및 금리 상승 부담 속 알파벳 시간외 주가 약세 여파에도, 이들의 CAPEX 가이드선 상향에 따른 마이크로 등 미국 반도체주 시간외 주가 강세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 장중에는 현대차, NH투자증권, KB금융 개별 실적 이벤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차별화 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판단.

또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가 2분기 전체 매출 호조(282억 달러 vs 컨센 263억 달러)에도, 매출총이익률(16.8% vs 컨센 19.4%), ESS 매출(31.4억 달러 vs 컨센 37.7억 달러) 부진으로 시간외 4%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는 점은 국내 ESS 관련주들의 수급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전일 코스피가 장 초반 +6%대를 기록한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는 점은 증시 회복 탄력성, 반등의 지속성에 대한 시장 불안심리를 가중시켰던 상황. 다만, 지난 20일 종가에 120일선을 이탈하는 등 기술적으로 중장기 추세 이탈 위협을 받았던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안도 요인. 또 실적 둔화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구간임에도 7월 이후 코스피 전반에 걸친 실적 추정치 훼손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7월 이후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변화율 +6.8%).

지난주부터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이 전일 코스피에서 반도체(+1.7조원) 포함 2.6조원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5월 6일(+3.1조원) 이후 일간 기준 최대 순매수에 나섰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 이처럼 차트, 실적,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중립 이상의 재료를 확보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7,000pt 아래까지 내려온 현재의 코스피 레벨은 바닥권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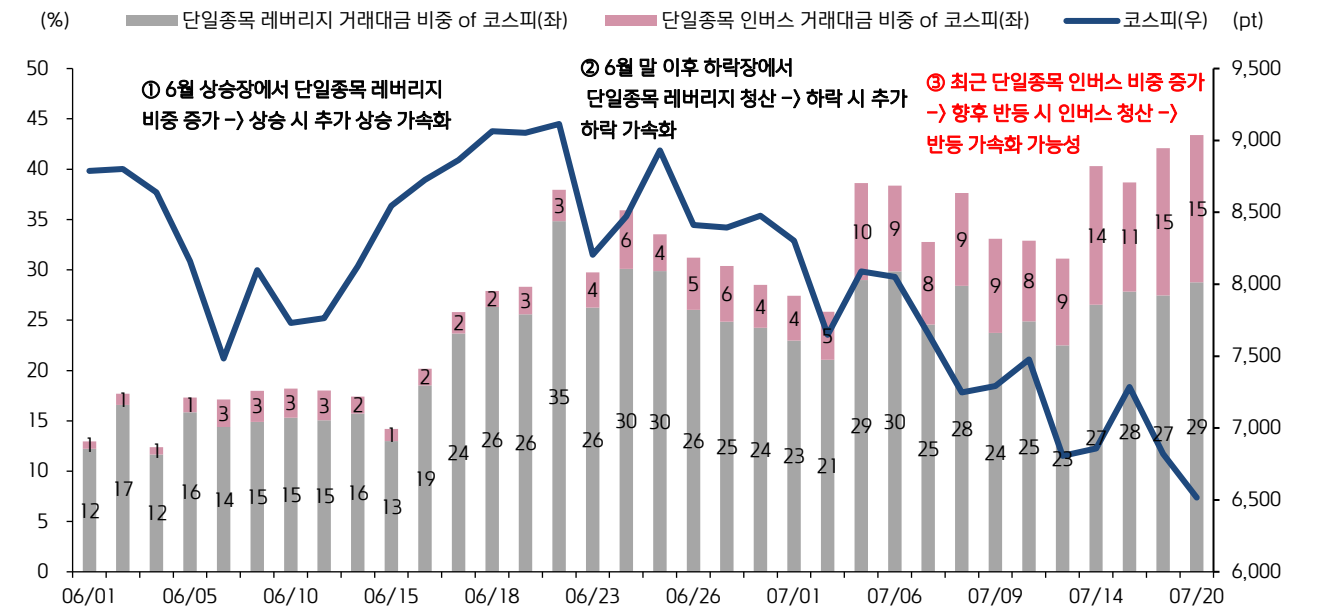
이는 차주까지 예정된 AI, 반도체 등 국내외 주도주 실적, 미-이란 휴전 기대감 재형성, 유가 상승세 진정 등 잠재적인 호재성 재료 출현시, 7월 초~중순 급락기에 비해 주가의 긍정적인 반응 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 따라서, 장중 변동성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인 혼란을 재차 유발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 축소가 아닌 비중 확대에 대응하는 전략을 우선시하는 것이 적절.

VKOSPI 지수와 단일종목 레버리지(16종 합산)의 AUM 추이: 사이드카의 일상화가 보여주듯이, VKOSPI가 여전히 80pt대를 넘나드는 고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환경. 다만, 최근 변동성 증폭의 출력을 인위적으로 높였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AUM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위안거리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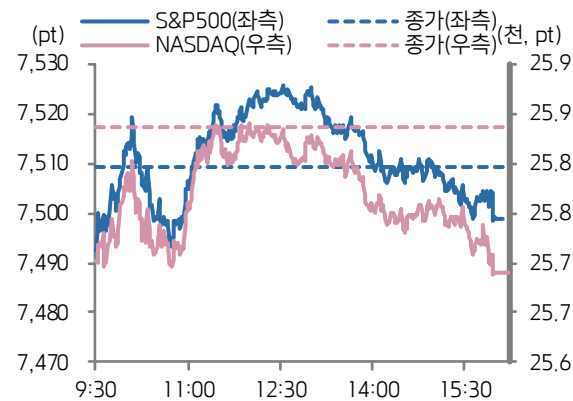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2x)의 청산이 하락을 추가로 가속화 시키는 패턴이 강했으나, 최근 들어 단일종목 인버스(-2x)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향후 증시 반등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청산이 그랬던 것처럼, 단일종목 인버스 청산(or 손절)이 증시 반등 탄력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을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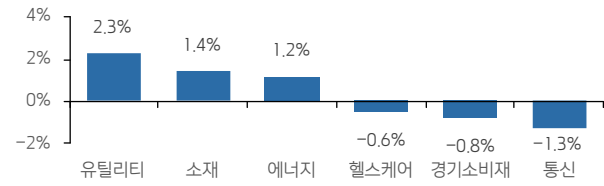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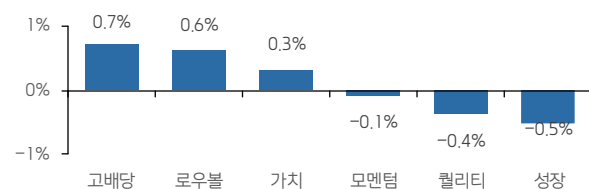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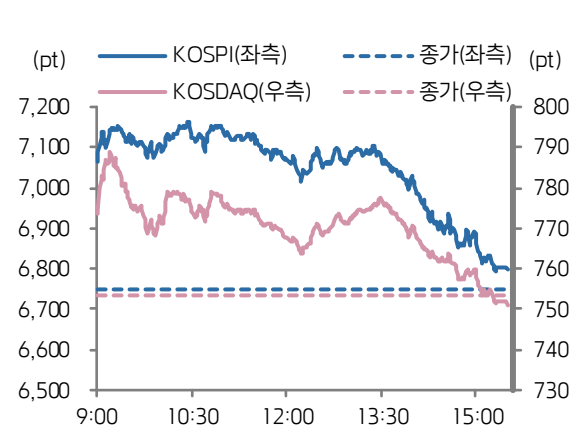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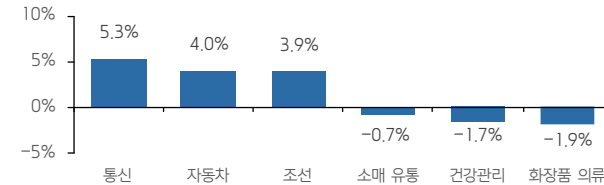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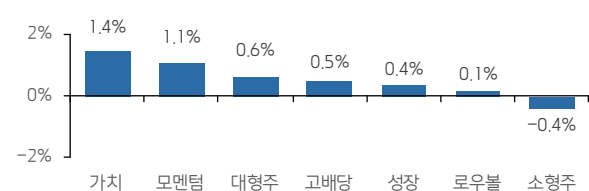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325.89	-0.56%	+20.1%	GM	82.13	+3.28%	+1.45%
마이크로소프트	390.34	-1.86%	-18.93%	일라이릴리	1,163.01	-1.05%	+8.59%
알파벳	342.09	-1.46%	+9.44%	월마트	109.33	-0.96%	-1.48%
메타	627.17	-2.58%	-4.82%	JP모건	348.21	+0.86%	+9.6%
아마존	244.85	-1.09%	+6.08%	엑손모빌	154.45	+1.81%	+30.08%
테슬라	374.01	-1.3%	-16.83%	세브론	192.98	+1%	+29.03%
엔비디아	212.06	+2.3%	+13.84%	제너럴일렉트릭	109.33	-1%	-1.5%
브로드컴	396.81	+2.67%	+15.07%	캐터필러	889.31	-0.07%	+56.19%
AMD	552.33	+1.45%	+157.91%	보잉	208.65	+1.88%	-3.9%
마이크론	959.48	-1.17%	+236.36%	넥스트에라	89.41	+1.7%	+1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797.70	+0.74%	+61.31%	USD/KRW	1,478.30	-0.24%	+2.7%
코스피200	1,080.22	+0.64%	+78.26%	달러 지수	101.14	-0.03%	+2.87%
코스닥	751.09	-0.3%	-18.84%	EUR/USD	1.14	+0.12%	-2.84%
코스닥150	1,266.85	-0.74%	-18.13%	USD/CNH	6.78	+0.09%	-2.88%
S&P500	7,498.96	-0.14%	+9.55%	USD/JPY	163.15	-0.01%	+4.11%
NASDAQ	25,690.90	-0.57%	+10.54%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2,218.58	-0.01%	+8.65%	국고채 3년	3.915	+4.9bp	+96.4bp
VIX	16.64	-2.4%	+11.3%	국고채 10년	4.385	+5.5bp	+100bp
러셀2000	2,959.94	-0.92%	+19.26%	미국 국채 2년	4.298	+3.6bp	+82.5bp
필라. 반도체	12,410.67	+0.44%	+75.21%	미국 국채 10년	4.655	+2.6bp	+48.8bp
다우 운송	22,599.05	-0.3%	+30.2%	미국 국채 30년	5.145	+1.4bp	+30.1bp
상해종합	3,867.03	+0.07%	-2.57%	독일 국채 10년	3.171	+0.8bp	+31.6bp
항생 H	8,251.07	-1.31%	-7.43%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755.05	-0.92%	-9.93%	WTI	86.83	+2.95%	+52.31%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94.07	+3.36%	+54.59%
Eurostoxx50	6,316.99	+0.5%	+9.08%	금	4,151.90	+1.85%	-6.5%
MSCI 전세계 지수	1,117.37	+0.03%	+10.13%	은	60.30	+2.01%	-14.6%
MSCI DM 지수	4,835.98	+0.89%	+9.15%	구리	649.35	-0.9%	+14.28%
MSCI EM 지수	1,653.29	+2.25%	+17.72%	BDI	2,670.00	-0.04%	+42.25%
MSCI 한국 ETF	170.43	-1.43%	+75.3%	옥수수	484.75	+2%	+5.27%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705.75	+4.09%	+29.32%
비트코인	65,889.79	-0.74%	-24.82%	대두	1,239.00	+1.33%	+16.39%
이더리움	1,926.39	+0.21%	-35.31%	커피	316.65	-1.69%	-1.0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2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